

장백산천지

제 377 호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전 세계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4.25 정신이 더욱 진귀하게 체현되다



1992년 5월에 전해진 파룬따파(또 파룬궁이라 함)는 수련자로 하여금 신체가 건강해지고, 도덕이 승화되어 민중들의 사랑을 광범하게 받았고, 입과 귀로 전하여 아주 빨리 전 중국에 널리 전해졌다. 1999년 4월 25일, 중국 대륙의 천진에서 무장경찰을 파견해 파룬궁 수련생을 구타하고 불법 체포한 소식이 전해지자, 1만여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남해 부근(부우가)에 위치한 국무원 청원사무실로 모여 천진시에 불법체포 당한 45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평온한 청원을 했다. 이번 청원은 당시 국무원 총리의 직접적인 접견과 개명한 처리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다. 이것이 '4.25' 사건이다.

당시 1만여명 파룬궁 수련생은 온화하고 평온한 청원을 이루었으며, 구호나 표어도 없이, 오직 단순하게 청원사무실에 진실한 상황을 반영하고, 정부측에서 파룬궁(法輪功)에게 자유롭고 합법적인 연공환경을 주고, 일부분 질책부문이 파룬궁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제지시킬 것을 희망했다. 현장에는 시끄럽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큰 소리로 말하

는 사람이 없었으며, 교통도 가로 막지 않았다. 다만 인행도로에서 서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련공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모습만 보여졌다.

그들이 떠나갈 때 바닥에 단 한장의 종이조각도 보이지 않았다. 많은 민중들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소질이 좋다며 중국 미래의 희망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청원에 직접 참여했던 중국 과학원 박사 석채동(石采东)은: “‘4.25’ 평화청원은 본질상 헌법이 부유한 공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도 중공당국에게 자기를 규정하고, 민심에 순응하는 기회였다. 하지만 3개월 후 중공에 의해 ‘중남해를 포위’했다고 왜곡 당했으며, 그것을 핑계로 삼아 박해를 발동하였다.”고 지적했다.

21년 후, 무한 폐렴이 전 세계에서 창궐할 때 중공은 거짓을 꾸미고, 전염병 상황을 은폐시켜 세계적인 재난을 조성했을 때 “4.25” 정신이 더욱 진귀하게 체현됐다.

사실상 만약 과거의 20년이란 시간에 더욱 많은 중국 사람들이 중공의 거짓말, 인류를 위반하는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파룬궁 수련생들마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중공의 거짓말을

배척했더라면 아마도 이번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중공은 오랫동안 진선인(真善忍)과 전통적인 가치를 탄압해 왔기에 지금의 중국 사회는 온갖 혼잡한 상태에 빠져있고, 가짜 분유로부터, 가짜 예방접종, 심지어 전염병 시기에도 가짜 마스크, 가짜 검측박스 등 위로부터 바닥까지 가짜 물품이 횡행하였다. 중공은 전염병 상황에서의 가짜 수치로부터 미국과 기타 나라에 뒤집어 씌우는 등 유언비어와 요언을 부단히 날조하였다. 미국 공화당 연방 의원 Ben Sasse는 “중공은 과거에도 거짓말을 했고, 현재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개 사악한 정권하에 민중들의 두려움과 침묵이 일상으로 변했을 때 그 정권은 더욱 마음대로 할개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한 폐렴에서 호루라기를 건네준 사람들이 전염병 진상을 폭로만 하면 체포 당하고, 훈계서를 쓰도록 요구되는 이유였다. 중선부의 심사제도는 “아무런 말이나 하지 못한다”로부터 “무슨말(2면에 계속)



[밍후이왕] 대만의 무한 폐렴 중 전염병 대처 표현은 각 국가를 주목하게 했다. 비록 감염자와 사망자도 발생했고 민중들에게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자각적인 사회교제 거리도 일깨워줬지만 대만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세계에서 주목 할 정도로 낮았다. 성 봉쇄와 소구역 봉쇄, 그리고 출입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기에 경제와 민중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그들의 성공한 관건은 무엇인가?

첫째로 대만은 전염병이 폭발하자 가장 먼저 채용한 조치중 돌출한 것은 제때에 국문을 막고 중국 대륙의 여러 지역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민진당은 “중공을 반대하지, 중국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만의 현정부는 중공에게 뒷돈을 주거나 등 애매모호

한 행위가 없었다. 대만의 공산당을 반대하는 선명한 입장은 대만의 정기를 견고하게 하고 전염병 대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되게했다.

둘째로 대만은 “중국공장”에 의존하지 않고 전염병의 발전에 직면해 자신들의 마스크 생산량을 신속히 늘렸다. 한차례 전염병에서 대만의 기업으로 하여금 20 개 나라를 초과하는 의료용품과 기재주문을 담당하게 해 전 세계의 방역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제를 일으켰다.

또 한가지 원인은 대만은 정확한 채검을 시작해 적극적이면서도 겨냥성 있게 방역하고 방지했다. 중공이 확진자수를 낮추고 기본상 “검출하지 않은” 정책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대만 위생부장 천시중 (陳時中) 은 “의료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피면

하고, 확진자수가 적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검출하여 사회구역의 전파력을 끊어버려야 한다.” 고 제기했다.

서방국가의 교훈

서방에서는 거대한 경제이익에 직면해 일부국가 정요와 상업인 사들은 일찍이 “중공은 마귀”라는 이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린지 오래됐다. 고대 사람은 말했다. “근육자즉”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하여 손댈 나위도 없을 때 자신을 중공과 서방 친공매체의 정치적 분규속에 자리잡게 한 미국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는 금지령을 가장 중요한 방역조치 중의 하나로 여겼다. 사실상 이것은 중공 성봉쇄의 복사판일 뿐이다.

만약 각 국가에서 더욱 명석하게 대만의 그런 선명한 “중공을 반대하지, 중국을 반대하지 않는다.”(중공은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를 보아낼 수 있었다면, 과감히 중공병독에 대한 자신 국가의 침투와 출입을 끊어 버릴 수 있었고, 흥색마의 손아귀에서 신속히 벗어 날 수 있어 방역효력은 아주 가능하게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이 나타났을 것이다. ◇

(1 면의 계속) 만 할 수 있다”까지, 이른바 가장 강력한 사회구역 방역인 “문을 나서기만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고, 말 대꾸하면 이를 뽑아 버린다.” 란 현수막을 걸어 공개적으로 천하에 알렸다; 중공은 자유세계에서도 함부로 하려 들었다: 각 큰 중영 사이트에서 대외선을 침투해 한계가 없는 오모, 칠모들을 매수해 중공을 세탁하기 위하는 등 가짜 정보를 조작했다.

전염병에서 중공의 거짓말과 은폐로 인해 전 세계 인류는 이미 생존의 큰 위기에 빠졌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그 누가 아직도 중공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 20 세기 가장 위대한 문화가와 사상가 중의 한 명인 알베르 카뮈가 “혁명이 강권과 역사의 명의로 살인하는 창궐한 기계로 변했을 때 한 가지 새로운 반항원칙 – 즉 절제와 생명의 명의로

신성한 행동으로 된다.” 고 단언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바로 진선인 (真善忍) 의 신앙과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선대, 관용과 존중으로 견정하게 나서서 중공의 거짓말을 평정하고, 박해의 사악을 폭로했다. 이러한 폭정을 대항할 때 그들은 원망이 없고, 오로지 자비, 평화와 리성적으로 파룬궁 자신의 신앙과 자유를 수호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본 도의와 인류의 공동한 생존환경에 대한 수호이다.

파룬궁의 ‘4.25’ 정신은 사람에게 계발을 가져다 주었다. “무력이나 권세 앞에도 굴복하지 않고”、“가난과 비천함으로 인해 기개가 꺾이지 않는다”란 고인의 기개와 가치관을 또다시 습득하여 인류의 공동한 안위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자: 중공을 거절하고, 진상을 전하고, 정사 선악 앞에서 정확한 선택을 할 것을 희망한다. ◇

파룬궁 수련생 747 명이 3 월 전염병 기간에 체포된다

밍후이왕 정보 통계에 따르면, 3 월 무한 폐렴 발생 기간에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 747 명에게 소란을 피웠고, 이 중에 384 명을 납치했다 (212 명은 이미 귀가 완료, 1 명은 탈출). 363 명은 괴롭힘을 당하고 313 명은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15 명은 불법적인 선고를 받고 5 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모함을

받아 검찰원과 법원으로 넘겨진 사람은 48 명이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86 세다. 3 월, 파룬궁 수련생 짜우리밍 (鄒立明), 샤오메이쥔 (肖美君), 천샤오민 (陳孝民), 세명이 박해로 사망했다. 중공이 3 월 한 달간 파룬궁수련생에게 강탈한 현금은 18 만 1800 위안이다. 그 중 법원에

서 9000 원을 강탈하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30 명 파룬궁 수련생의 가택에 침입해 17 만 2800 원을 강탈했다. ◇



연변박해소식 훈춘시 78 세 리숙매, 3 년 6 개월의 불법 징역형 선고받다

[밍후이왕] 연변주 훈춘시의 올해 78 세인 파룬궁 수련생 리숙매 (李淑梅)는 2019년 7 월에 납치 모함당해 3 년 6 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리숙매는 연길 (延吉)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후 가족도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2019년 7 월 24 일 오후 1 시가 넘어서 노인 리숙매는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미행한 경찰에게 납치됐고 공안국으로 납치됐다. 당시 가지고 있던 진상 자료는 모두 경찰에게 돌수당했고, 그날 저녁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7 월 25 일) 오전, 리숙매는 제 3 파출소에 의해 불려갔는데, 제 3 파출소에서 관할한다고 넘겼다. 한 시간 후 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7 월 26 일 오전, 갑자기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리숙매를 납치했다. 당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10 시에 그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찾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어디에서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7 월 29 일, 훈춘시 '610' 사람은 그녀 아들에게

통지해 리숙매를 잡아갔으며, 이미 리숙매를 연길 구치소로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리숙매 아들은 연길 구치소로 면회하러 갔다. 구치소에서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형사 구류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 후 8 월 13 일에 연변주 룽정 (龍井) 법원에서는 리숙매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해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2 년 형을 선고하려 했다. 두 차례 재판에서 언제 개정하는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가족이 찾아가서야 리숙매가 3 년 6 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주었다.

리숙매 노인은 이전에 체질이 약하고 잔병이 많았다. 목 위에는 계란만한 혹이 생겼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혹은 터져서 고름이 흘렀는데 주사를 맞고 약을 먹지 않고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완쾌됐다. 그녀는 20 여 년 동안을 수련해 몸은 매우 좋았다.

1999년 7 월에 중공의 악독한 우두머리 강택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리숙매는 청원하러 북경

에가서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고 예전에 1 년의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003년 2 월 하순에서 3 월 상순까지 박해를 피하기 위해 60 여 세인 그녀는 유랑생활을 하기도 했다.

2011년 12 월 말, 리숙매는 교화 (蛟河) 시에서 농촌으로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납치당해 길림시 구치소로 보내졌다. 그리고 교화시 법원에서 그녀에게 4 년 6 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2년 9 월 중순에 장춘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박해를 당했다. 2016년 1 월 말에 출소한 후, 리숙매는 훈춘시로 돌아와 거주했다.

리숙매는 여태껏 연길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헌법' 제 35 조에서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이 파룬궁 진상을 전파함은 타인이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완전히 타인과 사회에 이로운 행위이며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언론자유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합법적이다. ◇

대만 화롄 시민 ‘박해에 맞서 모두 목소리를 내야지’

[밍후이왕] 2020년 3월 15일, 대만 화롄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은 평소처럼 기차역 앞 광장에 와서 진상 전시 보드를 설치하고 파룬궁 공법을 시연했다. 그리고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와 생체 장기적출을 저지하기 위해 호소하며 시민들에게 강택민 고소 서명 활동을 했다. 정보업에 종사하는 샤(夏) 씨는 휴가를 이용해 화롄에 놀러 왔다가 차를 기다리던 중, 수련생이 그에게 반박해 서명을 설명했을 때 서명에 동의한 후 말했다.

“저는 파룬궁(수련생)의 진상 알리기 활동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제 업무상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잔혹한 박해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본 ‘국제 종교자유보고서’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은 각종 신앙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하고 있으며 파룬궁, 기독교 신도, 티베트 불교도, 위구르족을 포함해 지하교회 등도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박해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공은 무신론을 선전하기에 중국인이 종교의 자유를 갖는 것을



시민들이 서명으로 강택민 고소를 지지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 대만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 신을 믿고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며 머리 삼 척 위에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도덕이 있으며 선량한 사람이어야만 신불의 보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왕(王) 군은 말했다.“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생체 장기적출 관련 일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업할 때, 선생님께서는 최근 중국의 무한 폐렴, ‘폐 이식’ 뉴스를 우리에게 읽어 해주셨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도에서는 ‘5일만 기다리면 적합한 한 쌍의 건강한 폐를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해당 병원에서는 2~3일에 수술 한 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미 1천여건의 폐 이식 수술을 성공한 바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장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만에서 이식을 기다리려면 여러 해,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우리에게 타인을 돋는 것은 자신을 돋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인권 박해에 맞서 모두 마땅히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간곡하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택시업에 종사하면서 관광객을 기다리던 린(林) 씨는 기꺼이 서명하며 함께 중공의 파룬궁 박해 저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저는 옆에서 손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의 연공장에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것이 감싸고 있어서 몸이 따뜻해지고 매우 편안한 느낌이 있으며 확실히 기묘합니다.” 린 씨는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한층 더 이해하고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글 / 대만 파룬궁 수련생

전염병 신선한일 : '9자진언'으로 이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밍후이왕] 중공이 전염병을 은폐하여 민중들은 생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수많은 해외 파룬궁 수련생은 주동적으로 대륙민중에게 전화를 걸어 ‘3퇴하여 명을 보전’과 ‘9자진언’ 등 전염병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 봉쇄 속에 있는 중국사람에게 알렸다.

한 호남부녀는 해외 파룬궁 수련생의 전화를 받자마자 격동돼 하며 “나는 이미 당신들에게 가입했습니다!”라고 연이어 말했다. 수련생이 자세히 물어보자 여성은 “얼마 전에 열이 나고 가슴이 매우 답답한 느낌이 들었으나, 검측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

도 받을 수 없어 아주 고통스러울 때 파룬궁 수련생의 구명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9자진언’은 제가 곤난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고, 나는 이제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정말 신기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이미 당신들에게 가입했습니다!”의 뜻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짠싼런하오(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진언’을 성심껏 녘하면 진정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기상시 가장 먼저 ‘9자진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짠싼런하오(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을 녘한다고 한다.

파룬궁 수련생은 그의 신변에 다른 목소리가 들리자 신변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했는지를 물었더니 그녀는 “그들은 다 알고 있고, 다(중공의 조직에서) 퇴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때 한 남성이 다가와 큰 목소리로 두번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法輪大法好), 퇴당해 평안을 보전하자!” 그녀는 잇따라 말했다. “이젠 우리는 희망이 보입니다!”

